

## 대학생의 성역할과 외상 후 반응의 관계: 성별의 조절효과\*

박 혜 연

장 혜 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성역할과 외상 이후의 반응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158명이었으며, 참가자들에게 범죄 사건의 영상을 보여주어 외상을 경험하는 듯한 효과를 준 후에 반응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외상 후 반응으로는 우울, 불안, 분노 그리고 적개심을 포함하였다. 과거 외상경험과 각 증상의 기저선을 통제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남녀에 따라 성역할과 외상 후 반응 간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에서는 성역할이 외상 후 반응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으나, 여성에서는 여성성이 외상 후 우울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여성성과 남성성이 모두 높을수록 외상 후 적개심이 낮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임상적 시사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외상반응, 성역할, 성별, 대학생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2015년 석사학위 논문을 일부 수정 및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장혜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Tel : 02-760-0490, E-mail : hichang@skku.edu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 중 매우 고통스럽고 충격적이어서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외상사건(Traumatic Event)이라고 한다. 외상사건을 경험한 개인들이 보일 수 있는 정신장애 중 하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써 이 장애의 주요 증상들로 는 외상사건을 다양한 형태로 재경험하는 것, 외상사건과 관련된 자극들을 회피하는 것, 외상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생각이나 기분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 과도하게 놀라거나, 매우 예민해지고, 쉽게 흥분하고 분노하는 등의 각성 증상이 포함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PTSD 환자들은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일상생활과 학업 및 직업, 대인관계 등 다양한 기능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외상을 경험한 개인을 대상으로 PTSD의 발병을 예측하는 위험요인을 탐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물론, 외상 후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높은 개인을 선별하고 조기 개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임상적,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사회에서 PTSD의 1년 유병률은 약 3.5%, 평생 유병률은 약 8.7%인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구체적으로 PTSD의 평생 유병률은 남성 6%, 여성 11%로 여성의 유병률이 2배 가량 더 높다(Norris, Perilla, Ibanez, & Murphy, 2001; Norris, 1992).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성차가 나타나는 이유로 개인이 경험하는 외상의 유형의 차이(Resnick, Kilpatrick, Dansky, Saunders, & Best, 1993; Rothbaum, Foa, Riggs, Murdock, & Walsh, 1992), 외상 사건을 경험하는 동안 나타나는 감정반응의 차이(Bernat,

Ronfeldt, Calhoun, & Arias, 1998; Brunet et al., 2001), 외상 당시의 해리 반응의 차이(Bryant & Harvey, 2003; Grieger, Fullerton, & Ursano, 2003), 외상 사건에 대한 인지적 평가의 차이(Cohen, Kamarck, & Mermelstein, 1983; Cole, Sapp, 1988; Ptacek, Smith, & Zanas, 1992; Mak, Blewitt, & Heaven, 2004), 외상을 경험한 이후의 대처 전략의 차이(Bryant & Harvey, 1995; Bryant et al., 2000) 등을 탐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요인들 이외에도 개인의 성역할이 PTSD의 성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제안되었다. 성역할이란 한 문화권 안에서 남성적 혹은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성(Block, 1973)으로, 행동과 인지, 감정을 포함해 개인의 기능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남성성(masculinity)은 자신감 있고 도구적인 특성이며, 여성성(femininity)은 부드럽고 의존적인 특성이 다. 성역할은 사회적으로 형성되며 생물학적 성별과는 별개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Bem, 1974). 성역할은 비단 외상이나 PTSD 관련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 양상과 체계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rden-Imamoglu, 2013; Lefkowitz & Zeldow, 2006; Rose & Montemayor, 1994). 일반적으로 여성은 보통 공감적이고 남을 이해해주고, 남성들은 자신감 있고 경쟁적인 특징을 보이도록 사회화되는데(Leadbeater, Blatt & Quinlan, 1995), 그 결과 여성들은 문제를 내재화(internalize)하고 남성들은 외현화(externalize)하게 되어 남녀에 따라 나타나는 심리적 어려움의 양상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Nolen-Hoeksema, 1994). 외현화 문제는 알코올, 약물 관련 문제나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과 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충동적인 행동이 특징이며, 내재화 문제는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

서성이 주되게 나타난다(Miller, Greif, & Smith, 2003).

성역할과 정신건강 문제의 관계를 탐구한 경험연구도 이러한 주장과 일관된 결과가 많다. 먼저 성역할과 내재화 문제 간 관계를 살펴보면, 남성성이 높을수록 불안과 공포에 대한 회피가 낮고, 여성성이 높을수록 불안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McLean & Hope, 2010; Palapattu, Kingery, & Ginsberg, 2006).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성이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을 비롯한 내재화 증상의 수준이 높았다(Huselid & Cooper, 1994). 국내 연구에서도 스스로를 여성적이라고 생각한 여성일수록 우울감이 높았으며(한인영 & 홍선희, 2011), 여성성이 높은 고등학생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우울 수준이 높았다(염순교 & 이종화, 2014). 반면 외현화 문제는 남성성과 연관을 보인다는 결과가 많다. 예를 들면, 남성성이 높은 사람들은 내재화 증상 수준은 낮았으나 비행(delinquency), 즉 외현화 문제를 더 많이 보였다(Huselid & Cooper, 1994). 이와 유사하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남성성이 높으면 우울 수준은 낮았으나, 반사회성과 물질장애의 위험은 높았고(Lengua & Stormshak, 2000), 여성 내에서도 남성성이 높은 여성이 남성성이 낮은 여성에 비해 공격성이 더 높았다(Reidy, Sloan, & Zeichner, 2009). 분노 및 언어적 공격성과 관련해서도 남성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 수준이 높은 반면, 여성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 수준이 낮았다는 결과가 있었다(Kinney, Smith, & Donzella, 2001).

이렇듯 외상을 경험하기 이전에도 성별에 따라 취약한 문제의 유형이 다른데, 이러한 차이가 외상을 겪으면서 더욱 극대화되어 내재화 증상이 두드러지는 장애인 PTSD의 유형

률이 여성에서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대두된 바 있다(Foster, Kuperminc, & Price, 2004; Pratchett, Pelcovitz, & Yehuda, 2010).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성역할을 직접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성역할과 PTSD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일반인 표본에서는 여성의 PTSD 유병률이 남성보다 더 높지만, 군과 경찰 표본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병률의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들이 있었다(Pole, Best, Weiss, Metzler, Liberman, Fagan, & Marmar, 2001; Sutker, Davis, Uddo, & Ditta, 1995). 경찰과 군은 남성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집단으로, 집단 내 구성원들은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성역할을 하도록 격려된다(Kurpius & Lucart, 2000; Metcalfe & Dick, 2002; Sasson-Levy, 2003). 경찰과 군의 여성들은 남성적인 가치를 내면화하고(Metcalfe & Dick, 2002), 남성 중심적인 규범을 따르며 조직에 적응하게 된다(Sasson - Levy, 2003). 즉 군과 경찰 내의 여성들은 일반여성보다 남성성 성역할이 더 높은 집단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과 경찰에서 PTSD 유병률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성역할이 외상 후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유사하게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PTSD와 성별, 민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PTSD의 증상에서 남녀 간 차이가 없었으며(Pole et al., 2001), 군사작전에 참가한 군인들이 전쟁 지역에서의 복무 후에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부정적인 기분 상태, 신체적 불만, PTSD)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가 있었다(Sutker et al., 1995). 외상을 경험한 여성 경찰과 일반 여성들의 PTSD의 증상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여성 경찰의 증상이 일반 여성의 증상보다 적었으며, 정서적 고통의 수

준 또한 낮았다(Lilly, Pole, Best, Metzler, & Marmar, 2009). 이는 수입과 외상의 과거력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하게 나타나, 직업 상태가 두 집단 간 차이를 설명하는 유의한 요인이 밝혀졌고, 연구자들은 성역할이 이러한 차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의 연구들은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성역할, 특히 여성성이 PTSD의 취약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성별 및 성역할이 외상 후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성성과 외상반응 간 관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DSM-5의 PTSD 진단기준에 공격적 행동이나 분노의 폭발과 같은 행동적 증상이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과 같이(APA, 2013), 외상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이 내재화 증상만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이 외상 후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반응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Mendelsohn과 Sewell (2004)은 여성 피해자들이 PTSD의 증상을 보이는 것은 사회적으로 수용되지만, 남성 피해자들이 그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사회적으로 이해받기 어렵기 때문에 남성들은 외상 이후에 PTSD가 아닌 다른 형태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연구에서는 PTSD 증상이 있는 남성 대학생들의 증상이 없는 남성 대학생들보다 분노와 적개심, 공격성과 폭력성이 더 높았으며, 외상을 경험한 군인들은 외상을 경험한 일반인보다 공격이나 폭력사건을 일으킬 확률이 두 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Jakupcak & Tull, 2005).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외상을 경험한 남성들의 분노와 공격성이 외적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이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분노 표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성

역할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했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성역할이 PTSD의 유병률의 성차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이가 성역할에 따라 외상 이후의 반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PTSD 장애에 국한하지 않고, 성역할에 따른 외상 후 반응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두 개의 연구가 성역할과 외상반응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연구는 멕시코와 미국, 두 나라의 PTSD 환자군의 증상을 비교하여 성역할과 외상반응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Norris et al., 2001). 멕시코는 전통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을 강조하는 반면 미국은 비교적 전통적 성역할을 덜 강조하는 편이다. 두 나라의 태풍 피해 생존자들을 비교 연구한 결과 PTSD의 전체 증상과 침투, 회피, 회한 증상에서 성별과 문화권 간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멕시코 여성들은 멕시코 남성들보다 증상의 심각도가 훨씬 높았으며, 미국 여성들은 미국 남성들보다 증상의 심각도가 높았으나, 그 차이는 멕시코에서만 큼 크지 않았다. 나이가 미국 내에서는, 흑인 여성과 흑인 남성 간 증상 정도 차이가 백인 여성과 백인 여성 간 증상 정도 차이보다 더 작았다. 즉 성차는 멕시코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백인, 그리고 흑인 집단에서는 가장 성차가 적게 나타난 것이다. 같은 미국 문화권이라도 흑인 여성들은 독립성을 강조하는 성장과정을 거친다는 점(Davenport & Yurick, 1991; Reid, 1985)을 감안하면 성역할이 외상 후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성역할을 직접 측정하지는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문화가 다르면 성역할이 다를 것이라고 전제하였으나, 문화의 차이가 곧 성역할

의 차이는 아니며 두 문화권 간에 존재하는 또 다른 차이가 간과되었을 수 있다.

성역할과 외상 이후의 반응을 살펴본 두 번째 연구에서는 이례적으로 성역할을 직접 측정하여 PTSD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Valdez & Lilly, 2014). 이 연구는 타인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외상을 경험한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성별과 성역할, 그리고 PTSD의 진단기준 A2(외상을 경험하는 동안에 강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하는 지의 여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외상유형과 성별을 통제된 후에도 A2 진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남성성이 예측하였는데, 남성적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진단기준에 부합한 집단에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해 남성성이 높은 학생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진단기준에 부합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성역할 간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후속 분석 결과, 진단기준을 충족한 집단에서 남성성이 높은 남성은 여성성이 높은 남성보다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았으나 남성성이 높은 여성과 여성성이 높은 여성 간 비율 차이는 미미하였다. 이에 연구자들은 성별과 성역할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연구모형이 그 효과를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 연구는 성역할을 직접 측정하여 외상반응과의 관계, 나아가 성별과의 상호작용까지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외상반응에 부정적인 감정반응 즉 내재화 문제만을 고려했다는 한계가 있다.

성역할과 외상반응에 관한 이 두 연구는 성역할이 외상 이후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지한다. 나아가 미국 문화권 내 백인여성과 흑인여성 간 PTSD 증상의 차이(Norris et al., 2001), 그리고 PTSD의 A2 진단기

준 부합 집단 내 남성성이 높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 차이(Valdez & Lilly, 2014) 등을 고려하면 성역할과 외상반응 간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종합해보면 성역할에 따라 외상 후의 반응이 다를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성역할을 직접 측정하고, 내재화 증상은 물론 외현화 증상도 외상반응으로 포함하여 성별과 성역할, 외상반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내재화 증상에는 우울과 불안, 그리고 외현화 증상에는 분노와 적개심을 포함하였다.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 행동적인 공격성을 보이리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공격성은 제외되었다. 특히 공격성을 자기보고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왜곡되어 보고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Buss & Perry, 1992),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이미 외상을 경험했거나 PTSD가 발병한 집단이 아닌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실에서 외상 유사 경험을 제공하여 외상 유형이나 시기가 PTSD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고(Resnick, Kilpatrick, Dansky, Saunders, & Best, 1993; Rothbaum, Foa, Riggs, Murdock, & Walsh, 1992), 관찰된 증상양상이 PTSD의 결과가 아니며 외상 후에 발생하여, 결국 장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기존 외상경험을 통제하고, 실험실에서 외상 경험을 하기 전의 증상도 측정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성역할과 외상 후 반응 간 관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여성성이 높을수록 외상을 경험한 이후에 우울 및 불안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남성성이 높을수록 외상을 경험한 이후에 분노 및 적개심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성역할이 외상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3-1.** 여성성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클 것이다.

**가설 3-2.** 남성성이 분노, 적개심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클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심리학과 교양 수업을 듣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실험에 참여한 대가로 실험 참가 점수를 받았으며, 한 회기 당 4명의 학생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은 해당 대학의 두 캠퍼스에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두 곳의 실험환경은 유사하였다. 캠퍼스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 결과, 어느 증상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참가자는 160명이었으나, 연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2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158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남학생은 74명(54%), 여학생은 84명(46%)이었으며,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1.8세( $SD=2.23$ )였다.

### 실험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도구는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외상 관련 영상을 통해 효과

적으로 외상을 경험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Lepore et al., 2001; Sells & Martin, 2001; Schmaus et al., 2008). 구체적으로 Schmaus 외의 연구(2008)에서는 대학생들에게 홀로코스트 현장에 관한 영상을 7분 동안 보여준 후 부정적 감정이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Lepore 외의 연구(2000)에서는 외상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게 한 후 48시간 이후에 스트레스 수준과 각성 상태를 측정했는데, 연구 결과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Sells와 Martin의 연구(2001)에서도 학부생을 대상으로 전쟁에서 친구를 잃은 베트남 참전 군인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었는데, 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부정적인 감정이 높아졌다. 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외상 관련 영상이 외상을 경험한 것과 유사한 심리적 효과를 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실험 절차를 참고하여, 참가자들에게 외상을 목격하는 것과 같은 자극을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홀로코스트와 베트남 전쟁은 사건 발생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미디어를 통해 많이 노출되었으며,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참가자들과 심리적 거리가 멀어 본 연구를 위한 실험에서는 적합치 않다고 여겨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의도에서 일어난 홍기 난동 사건에 관한 영상을 사용했는데, 이 사건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국내 사건이기 때문에 참가자들과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웠으며, 미디어 노출 또한 적었기 때문에 본 실험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여의도 홍기 난동 사건은 2012년에 일어났는데, 한 남성이 여의도에서 전 직장동료들에게 칼

을 휘두른 후 행인, 특히 여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한 시간만에 체포된 사건이었다. 실험에는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를 사용하였는데, 영상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사건 현장의 사진,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구성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영상의 길이는 7분 혹은 18분가량이었으나 본 연구의 영상은 2분가량이었다. 이는 홀로코스트나 베트남전과는 달리 여의도 흉기 난동 사건에 관련된 영상 자체가 매우 적었으며, 그 중 몇몇 영상은 실험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아 제외되었기 때문이었다. 영상에 포함된 모든 뉴스는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것이었으며, 참가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외상을 줄 수 있는 참혹하거나 끔찍한 장면은 윤리적인 이유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기존연구들 중 영상을 시청한 후 48시간 후에 증상을 측정하는 것은 심리적 증상 뿐 아니라 생리적 증상과 함께 살펴보기 위함이었다(Lepore et al., 2008). 그 외 심리적 증상만을 본 연구들은 영상을 본 직후에 심리적 증상을 측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영상을 본 후 비교적 즉각적으로 증상을 측정하였다(Schmaus et al., 2008; Sells & Martin, 2000).

#### 실험절차

실험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연구를 소개하고, 연구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 후 참가자들에게 성역할 질문지, 그리고 각 증상 점수의 기저선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제공했다. 참가자들이 모든 설문지를 작성한 후에는 참가자들에게 2012년 여의도에서 있었던 흉기 난동 사건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

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영상이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언제라도 실험을 그만둘 수 있었으며, 그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도록 안내되었다.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10분에서 15분가량 휴식을 취한 후에 각 증상에 관한 질문지와 기존의 외상 경험을 묻는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 후 실험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다. 사건의 가해자는 경찰에게 검거되었고, 피해자들 또한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실험으로 인해 불편을 겪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한 후에 실험을 종료하였다.

#### 측정도구

##### 성역할 정체감 유형 척도(Korea Sex-Role Inventory; KSRI)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성역할 정체감 유형 척도(Bem Sex-Role Inventory; Bem, 1974)를 사용하였다. BSRI는 성역할을 측정하기 위해 Bem(1974)에 의해 개발된 척도로, 성역할을 측정하는 데에 가장 널리 쓰인다. 본 연구에서는 정진경(1990)이 번안하고 표준화한 한국 성역할 정체감 척도(KSRI)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남성성, 여성성, 중립 문항이 각각 20개씩 포함되어 총 6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항상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이 측정하는 특성의 점수가 높은 것이다. 남성성은 “과묵하다”, “자신감이 있다”, “대범하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성은 “부드럽다”, “감정이 풍부하다”, “민감하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BSRI의 Cronbach 수준

과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0에서 .75 사이로 나타났으며(Bem, 1974), KSRI의 경우에는 Cronbach가 남성성에서 .91, 여성성에서 .84, 중립성에서 .75로 나타났다(정진경, 1990).

#### **한국판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 Depression scale; CES-D)**

영상 시청 전후 실험 참가자들의 우울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우울 척도(Radloff, 1977)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우울 척도는 현재의 우울 증상을 측정하는 도구로, 우울한 기분, 죄책감, 무력감과 같은 문항들이 포함된다. 척도는 20문항이며, 4점 척도(0점: 극히 드물다 ~ 3점: 대부분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일치도 계수는 일반 표본에서 .85, 환자 표본에서 .90으로 나타났으며, 2주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45 ~ .70으로 나타났다(Radloff, 1977). 본 연구에서는 전경구와 이민규(1992)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판 우울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한국판 우울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1로 나타났다(최상진, 전경구, & 양병창, 2001)

####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Y)**

실험 참가자들의 걱정이나 불안, 긴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STAI; Spielberger, Gorsuch, & Lushene, 1970)을 사용하였다.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은 상태 불안 20문항, 특성 불안 20문항, 총 40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각 문항은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은 상태불안과 특질불안 요인을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환자를 더 잘 감별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검사이다.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에서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 두 가지의 불안을 측정하는데, 여기에서는 외상 영상을 본 후 변하는 불안에 관심이 있었으므로 상태 불안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덕웅, 이장호, 전경구(1996)가 번역하고 표준화한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의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원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89 ~ .96이었으며(Spielberger, 1983), 한국어판의 내적 일치도는 상태불안의 경우 .92였다(한덕웅, 이장호, 전경구, 1996).

####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분노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 Spielberger, 1988)를 사용하였다.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는 상태 분노 10문항, 특질 분노 10문항, 분노 표현 24문항(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 각각 8문항)을 포함한 총 44문항으로, 각 문항을 4점 척도(1점: 거의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거의 언제나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한다.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의 하위척도는 상태 분노, 특질 분노,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상 영상을 본 후 변화하는 분노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상태분노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상태 분노의 내적 일치도는 .93이었다(Spielberger, 1988). 본 연구에서는 한덕웅, 이장호, 전경구(1998)가 표준화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K)를 사용하였으며, 내적 일치도는 .81(특성 분노), .67(분노-억제), .71(분노-표출), .82(분노-통제)로 나타났다.

### 간이정신진단검사(Brief Symptom Inventory; BSI) 중 적개심 척도

적개심을 측정하기 위하여 간이정신진단검사(BSI; Derogatis, 1983)를 사용하였다. 간이정신진단검사는 53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아홉 가지의 심리적 증상(신체화, 강박, 대인관계 민감성, 우울, 불안, 적개심, 불안, 편집증적 사고, 정신증)을 5점 척도(0점: 거의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간이정신진단검사의 내적 일치도는 .96으로 나타났다(Tate, Forchheimer, Maynard, Davidoff, & Dijkers, 1993). 본 연구에서는 간이정신진단검사의 하위 항목 중 적개심에 해당하는 6문항만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적개심의 내적 일치도는 .79로 보고된 바 있다(Broadly & Mason, 1991).

### 외상 이력 질문지(Trauma History Questionnaire; THQ)

연구 참가자들의 외상 경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외상 이력 질문지(THQ; Green, 1996)를 사용하였다. 외상 이력 질문지는 24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개인이 범죄, 성폭행/학대, 비극적인 죽음, 재해와 같은 외상 사건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외상 이력 질문지는 범죄, 일반적인 재난 및 외상, 성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의 세 범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범주에 구체적인 외상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각 질문에 대하여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하게 되어있으며, 만일 질문에서 언급한 외상을 경험한 경우에는 외상을 경험한 당시의 나이와 그 외상의 반복여부와 빈도에 대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을 경험한 전체 횟수를 통제변인으로 분석

에 포함하였는데 이 경우 같은 외상이라도 여러 번 경험했다면 전체 외상 경험 횟수에 반영이 되었다. 대안적으로, 경험한 외상 유형의 개수를 분석에 포함하더라도 분석결과에 차이는 없었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SPSS Statistics version 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인의 기술 통계치 및 변인 간의 상관을 확인하였고, 실험 조작 전후의 종속변인의 평균차를 확인하기 위해 각 증상에 대해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후 외상반응에 대한 성역할과 성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했다. 1단계에서는 실험 이전의 외상 경험과 증상의 개인차를 통제하기 위해 외상이력과 증상 사전점수를 포함하였다. 2단계에서는 성별과 성역할이 독립변인으로 포함되어 외상반응에 대한 성역할(남성성, 여성성)과 성별을 주효과를 확인하였다. 3단계에서는 성별과 성역할 변인의 이원상호작용항(남성성x성별, 여성성x성별)이, 4단계에서는 삼원 상호작용항(남성성x여성성x성별)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는 총 158명의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결측치는 Expectation Maximization(EM)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이 방법은 결측치 추정을 반복하여 모수치를 추정해내는 방법으로 다른 추정방법들보다 더 정확하고 편향되지 않은 결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Allison, 2002).

### 결 과

변인들 간의 상관 및 기술 통계치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주요변인을 먼저 살펴보면, 성별(여성)은 남성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r = -.18, p < .05$ . 여성성은 남성성과의 상관이 유의했다,  $r = .61, p < .01$ .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성역할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을 의미한다.

남성성은 내재화 증상의 영상 시청 전 점수와 시청 후 점수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

다.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성과 사전우울,  $r = -.28, p < .01$ , 사후우울,  $r = -.21, p < .01$  과의 상관이 부적으로 유의했으며, 남성성과 사전불안,  $r = -.32, p < .01$ , 사후 불안,  $r = -.18, p < .05$  의 상관 또한 부적으로 유의했다. 반면, 여성성은 본 연구에 포함된 외현화 및 내재화 증상과 유의한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다. 통제변인 중에서는 외상이력이 사전 불안,  $r = .17, p < .05$ , 사후 적개심,  $r = .22, p < .01$  과의 상관이 유의했으며, 사전 분노,  $r = -.19, p < .05$ 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 및 기술 통계치

1. 성별	성역할		4. 외상 이력	우울		불안		분노		적개심		
	2. 여성성	3. 남성성		5. 전	6. 후	7. 전	8. 후	9. 전	10. 후	11. 전	12. 후	
1.												
2.	-.10											
3.	-.19*	.61**										
4.	.08	-.01	.02									
5.	.12	-.04	-.28**	.12								
6.	.14	-.02	-.21**	.13	.53**							
7.	.15	-.09	-.32**	.17*	.77**	.41**						
8.	.10	-.01	-.18*	.12	.31**	.72**	.33**					
9.	.02	-.04	-.18*	.19*	.50**	.34**	.52**	.19*				
10.	.01	.08	-.02	.06	.16*	.54**	.13	.58**	.16*			
11.	.09	-.03	-.15	.15	.54**	.35**	.56**	.24**	.71**	.22**		
12.	.03	-.02	-.12	.22**	.37**	.57**	.34**	.45**	.37**	.75**	.43**	
M	-	86.66	88.32	2.54	34.08	44.49	39.75	57.10	10.92	17.53	7.49	9.85
SD	-	11.48	12.35	3.17	10.11	13.07	10.44	12.05	2.24	6.54	2.10	4.62

주. 성별 = 1 남성, 2 여성; 외상이력 = 외상을 경험한 총 횟수; 전 = 영상 시청 전의 증상점수, 후 = 영상 시청 후의 증상점수. † $p < .10$ , \* $p < .05$ . \*\* $p < .01$ .

외상 영상의 효과 검증

실험에서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상을 시청하기 전후의 각 증

상점수의 평균차이를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하였다. 시간을 집단 변인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증상 점수가 영상 시청 전보다 후에 높아져, 실험에 사용한 영상이 참가자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영상 시청 전후의 증상 점수 (N=158)

변인	평균(표준편차)		<i>t</i>
	전	후	
우울(CES-D)	34.08(10.11)	44.49(13.07)	-11.30**
불안(STAI-S)	39.75(10.44)	57.10(12.05)	-16.71**
분노(STAXI-S)	10.92(2.24)	17.53(6.54)	-12.67**
적개심 (SCL-R-90-H)	7.49(2.10)	9.85(4.62)	-7.12**

\*\**p* < .01.

성별과 성역할에 따른 우울의 변화

영상을 시청한 이후의 우울에 성별과 성역할이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사전 우울 점수, *t*=7.55, *a*=.00,가 유의하게 사후 우울 점수를 예측하여

표 3. 우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외상 후 우울				
	<i>B</i>	$\beta$	<i>t</i>	<i>F</i>	$\Delta R^2$
1단계				30.27**	.272**
외상 이력	.27	.07	.97		
사전 우울	.67	.52**	7.55		
2단계				12.62**	.270
성별	1.57	.06	.86		
여성성	.09	.08	.92		
남성성	-.12	.12	-1.26		
3단계				9.44**	.301*
성별*여성성	.41	.28*	2.10		
성별*남성성	-.23	-.16	-1.27		
여성성*남성성	-.01	-.13†	-1.88		
4단계				8.35**	.296
성별*여성성*남성성	-.00	-.03	-.26		

\**p* < .05.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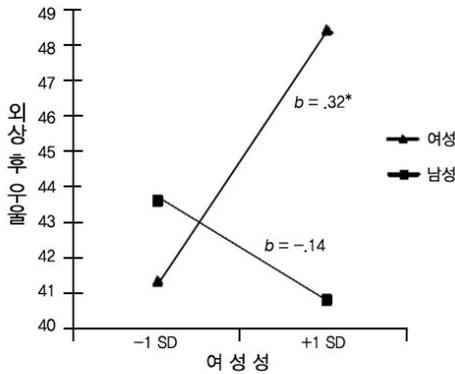


그림 1. 우울에서의 성별과 여성성의 상호작용

영상 시청 전의 우울 수준이 높았을수록 시청 후의 우울 수준이 높았다. 분석의 3단계에서 성별과 여성성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남성성과 여성성의 상호작용항이 추세수준으로 우울점수를 예측하였다. 그러나 여성성과 남성성을 모두 고려한 최종모형에서는 사전 우울점수,  $t=6.63$ ,  $a=.00$  와 성별과 여성성의 상호작용항,  $t=2.11$ ,  $a=.04$  만이 유의하게 사후 우울을 예측하였다.

성별과 여성성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 기울기(simple slope)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단순 기울기가 남성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t=-0.80$ ,  $p=.43$ , 여성에서는 유의했다,  $t=2.21$ ,  $p=.03$ . 단순 기울기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여성성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여성의 경우 여성성이 높아질수록 우울이 높아졌다.

#### 성별과 성역할에 따른 불안의 변화

영상을 시청한 이후의 불안에 성역할과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통제변인 중에서는 사전 불안만이 유의하게 사후 불안을 예측했으며,  $t=4.23$ ,  $a=.00$ , 최종 분석에서도 유의하게 사후 불안을 예측해,  $t=3.27$ ,  $a=.00$ , 영상을 보기 전의 불안이 높을수록 영상을 본 후에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성과 남성성의 상호작용은 분석의 3단계에서는 사후 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했으나,  $t=-2.28$ ,  $a=.02$ , 삼원 상호작용까지 고려한 최종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 성별과 성역할에 따른 분노의 변화

영상을 시청한 이후의 분노에 성역할과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과 성역할은 분노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으며, 변인 간의 상호작용들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변인 중에서는 사전 상태분노가 사후 분노를 유의하게 예측했으며,  $t=1.95$ ,  $a=.00$ , 최종모형에서도 유의하게 사후 분노를 예측해,  $t=1.81$ ,  $a=.07$ , 영상 시청 전의 분노가 높을수록 영상 시청 이후의 분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과 성역할에 따른 적개심의 변화

영상을 시청한 이후의 적개심에 성역할과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통제변인 중에서는 외상이력이 사후 적개심을 유의하게 예측해,  $t=2.22$ ,  $a=.03$ , 외상을 많이 경험했을수록 사후 적개심

표 4. 불안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외상 후 불안				
	B	$\beta$	t	F	$\Delta R^2$
1단계				10.00	.10**
외상 이력	.23	.06	.80		
사전 불안	.37	.32**	4.20		
2단계				4.72**	.11
성별	.73	.03	.39		
여성성	.15	.14	1.49		
남성성	-.17	-.17†	-1.69		
3단계				3.75**	.12
성별*여성성	.10	.07	.50		
성별*남성성	-.11	-.08	-.58		
여성성*남성성	-.01	-.18**	-2.28		
4단계				3.40**	.12
성별*여성성*남성성	-.01	-.11	.42		

† $p < .10$ , \*\* $p < .01$ .

표 5. 분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외상 후 분노				
	B	$\beta$	t	F	$\Delta R^2$
1단계				2.14	.01
외상 이력	.05	.02	.31		
사전 분노	.46	.16**	1.95		
2단계				1.17	.01
성별	-.02	.00	-.02		
여성성	-.04	-.08	-.73		
남성성	.07	.13	1.27		
3단계				1.13	.01
성별*여성성	.07	.10	.63		
성별*남성성	-.14	-.19	-1.26		
여성성*남성성	.00	-.11	-1.32		
4단계				1.16	.01
성별*여성성*남성성	-.01	-.17	-1.17		

\*\* $p < .01$ .

표 6. 적개심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외상 후 적개심				
	B	$\beta$	t	F	$\Delta R^2$
1단계				138.92**	.20**
외상 이력	.23	.16*	2.22		
사전 적개심	.88	.40**	5.56		
2단계				57.81**	.19
성별	-.27	-.03	-.40		
여성성	-.04	-.09	-1.01		
남성성	-.02	.05	.53		
3단계				35.80**	.19
성별*여성성	.06	.11	.80		
성별*남성성	-.03	-.05	-.36		
여성성*남성성	.00	-.11	-1.38		
4단계				32.83**	.21*
성별*여성성*남성성	-.01	-.28*	-2.26		

\* $p < .05$ . \*\* $p < .01$ .

이 높았다. 주요 변인에서는 성별과 남성성, 여성성의 삼원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사후 적개심을 예측하였다,  $t = -2.26$ ,  $a = .03$ .

성별과 여성성, 남성성의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에서만 단순 기울기가 유의했다,  $\beta = -.13$ ,  $a = .04$ . 여성, 특히 여성성이 높은 여성은 남성성이 높을수록 적개심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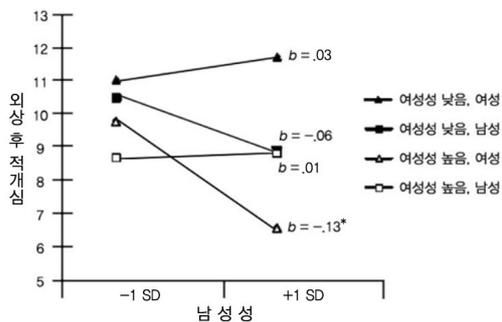


그림 2. 적개심에서의 성별과 남성성, 여성성의 상호작용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과 외상 후 반응 간 관계에서 성별이 미치는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여성성이 우울 및 불안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여성

성의 주효과는 우울과 불안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아, 여성성이 외상 이후의 내재화 증상을 높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Norris et al., 2001; Valdez & Lilly, 2014)들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남성성이 높을수록 외상을 경험한 이후에 분노 및 적개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또한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남성성은 외현화 증상을 예측하지 못했으며, 이 결과는 남성성이 높을수록 외상 이후의 외현화 문제가 많아질 수 있다는 기존의 결과들(Jakupcak & Tull, 2005; Mendelsohn & Sewell, 2004)과는 상반된다.

이처럼 성역할이 외상 이후의 반응에 미치는 주효과에 관한 가설 모두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영상을 통하여 외상 경험을 하도록 조작된 실험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홀로코스트 혹은 전쟁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사용하였던 선행연구들(Lepore et al., 2001; Sells & Martin, 2001; Schmaus et al., 2008)과 달리 범죄에 관한 영상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상은 선행연구에 사용된 영상에 비해 길이가 짧고 그 내용 또한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참가자들에게 외상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윤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충격적이거나 끔찍한 영상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러나 t검증에서 영상 시청 전후의 증상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실험 영상이 참가자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 외상 이후의 반응을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관한 의문은 남아있다.

성별이 성역할이 외상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

었다. 내재화 증상 중에서는 우울에 대해 여성성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여성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에서만 유의했다. 이는 외상을 경험한 이후에 남성보다 여성이 우울을 더 많이 보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Green, Kramer, Grace, Gleser, Leonard, Vary, Lindy, & Miller, 1997).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성별의 효과로만 설명하고 성역할까지 고려하지 않았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 여성이 외상 후에 우울해졌다는 선행 결과(Green et al., 1997)는 여성성이 여성의 외상 이후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해보면 본 연구의 결과는 외상을 경험한 여성 내에서도 여성성 수준의 개인차에 따라 우울 수준이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남성성이 외현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보다 남성에서 클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적개심에서 성별과 여성성, 남성성의 삼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 상정한 가설과는 달리 여성성과 남성성의 상호작용은 여성에서만 유의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성이 높은 여성은 남성성이 낮을수록 비디오 시청 후에 적개심이 높아졌고 남성성이 높을수록 적개심이 낮아져, 여성성만 높은 것은 적개심에 대한 위협요인인 반면 여성성과 남성성 모두 높은 것은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모두 높은 개인이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양성성 모형(Bem, 1975; Erden-Imamoglu, 2013; Zhonghui & Jing, 2013)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여성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 이러한 결과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여성의 경우에는 양성성이 외상 경험 이전 뿐 아니라 외상을 경험한 이후에도 심리적으

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여성성이 높고 남성성이 낮을수록 외상 후 적개심이 높아졌는데 이는 여성성이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내재화 증상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상반된 결과이다(Lilly et al., 2009; Norris et al., 2001; Valdez & Lilly, 2014).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실험 영상의 내용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 연구에 사용된 영상에서는 여성들은 일방적인 피해자였던 반면, 남성들은 가해자를 제지하거나 사건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영상의 내용이 여성들 특히 여성성이 높은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남성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특히 영상에서 가해자 남성은 전 직장동료였던 남자 피해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나가던 여성이나 택시에서 내린 여성을 쫓아다니며 흥기를 휘둘렀다. 이러한 영상의 내용이 가해자가 여성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듯한 인상을 주어, 여성성이 높은 여성들에게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이나 여성이 주로 범행의 대상이 되었던 상황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외상 이후의 반응에 대한 성역할의 영향을 직접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PTSD의 성차와 관련하여 성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Tolin & Foa, 2006; McLean & Anderson, 2009).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성역할이 외상 이후의 반응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으며, 이를 살펴본 소수의 연구들조차 성역할을 직접 측정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

구들은 대개 성역할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나(Pole et al., 2001; Sutker et al., 1995), 이 경우 성역할이 아닌 다른 요인들이 외상 이후의 반응에 미칠 영향을 배제하기가 힘들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성역할을 측정하여 성역할이 외상 이후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더 중요하게 본 연구는 성별과 성역할의 상호작용이 외상 이후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별이 성역할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구분되는 독립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Block, 1973), 성별과 성역할이 상호작용하여 외상 이후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PTSD와 성별, 성역할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었으며, 역시 성역할을 직접 측정하지 않거나(Norris et al., 2001), 내재화 증상만을 연구에 포함한 한계가 있었다(Valdez & Lilly, 2014). 본 연구에서 성역할을 직접 측정하여 성별과 성역할, 외상 이후 반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은 국내외 모두에서 선행연구가 부족했던 주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결과, 우울과 적개심에서 성별과 성역할의 상호작용이 나타나 외상 이후의 반응을 살펴볼 때 성역할과 성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우울에 관한 결과는 외상 이후에 여성이 내재화 증상을 보이는 것이 여성성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었으며, 적개심에 관한 결과는 양성성이 외상 이후에 여성의 외현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한다면, 성역할이 외상 이후에 여성이 보일 수 있는 증상을

예측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외상 유형은 범죄와 신체적 외상으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성역할이 외상을 경험한 개인의 외상 후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된다면, 성역할이 외상을 경험한 남녀의 반응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외현화 증상, 즉 분노와 적개심을 연구에 포함하여 외상 후 나타나는 정서적 변화를 보다 광범위하게 이해하고자 했다는 의의가 있다. PTSD의 주요 증상이 외상 사건에 대한 회피, 인지와 기분의 부정적인 변화와 같은 내재화 증상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는 외상 후 발현되는 내재화 증상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남성성과 여성성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각기 다른 영향을 주고, 남성성이 외상 이후의 분노나 적개심과 같은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Castillo et al., 2002; Jakupcak & Tull, 2005), 외상 후 반응양상에 외현화 증상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했다. 더욱이 최근 개정된 DSM의 PTSD 진단기준은 외상 후 나타날 수 있는 외현화 증상을 고려하도록 되어있다(APA, 2013).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분노, 적개심과 같은 외현화 증상을 포함하여 외상 이후의 다양한 반응양상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외상 후 외현화 반응이 남성성과 관련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외상 영상의 내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외상 후 외현화 증상의 발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외상 이후 반응에서의 성역할과 성별의 상호작용을 검증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본 연구의 표본은 PTSD가 있거나 외상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라고 보기 힘들다. 외상 경험 질문지를 통해 외상의 경험 여부를 가려냈으나, 대부분의 참가자가 심각하거나 끔찍한 외상을 경험한 적이 없었으며,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연구에 참여할 만큼 적응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PTSD군이나 실제로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PTSD를 경험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모든 보고가 회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는 외상을 경험한 직후의 반응을 잡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외상 이후의 반응을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외상 경험을 실험실에서 제공했다는 데서 본 연구의 한계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비임상군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외상을 경험하는 듯한 조작을 가하여 외상 이후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외상의 유형을 통제하고 외상 후 반응을 즉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인과관계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참가자들이 보인 반응이 실제 외상 이후의 반응을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남는다. 물론 기존에도 본 연구와 유사한 자극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t검증 결과 외상 영상을 시청하기 전과 후의 증상 점수가 유의하게 달랐으나 실험실에서 관찰된 외상 후 반응이 현실에서의 외상 후 반응과 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

요가 있다. 예를 들면, 외상 후 심리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뒤늦게 발현되는 경우도 있는데(APA, 2013),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외상 영상을 이용해 통제된 실험실 상황에서 외상 반응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외상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실험 영상에서 제공된 외상 유형이 단일하다는 점이 한계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 유형이 PTSD에 미칠 수 있는 영향(Resnick, Kilpatrick, Dansky, Saunders, & Best, 1993; Rothbaum, Foa, Riggs, Murdock, & Walsh, 1992)을 통제하기 위하여 하나의 사건만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2012년 여의도 흉기 난동 사건의 영상이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은 외상 유형 중 범죄와 신체적 외상에 해당되는 외상 사건을 경험하는 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될 수 있으나, 다른 유형의 외상에는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본 실험 영상에서 남성은 가해자로 그려지거나 사건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었고, 여성은 일방적인 피해자로 그려졌기 때문에 영상이 여성과 남성이 주는 영향이 달랐을 수 있다. 즉 여성의 경우 범죄와 신체적 외상에 해당하는 듯한 경험을 했으나 남성의 경우 방관자의 위치에 머무르는 것으로 그쳤을 수 있다. 이는 곧 본 결과가 신체 피해가 관여된 범죄 외상을 경험한 개인에게 모두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유형의 자극을 사용하여 실험 영상의 내용에 따른 효과

를 확인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방법에 한계가 있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 도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편향이 있었을 수 있다. 일례로, 분노 측정에 사용된 STAXI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오염이 있을 수 있음이 지적되었으며(McEwan, Davis, MacKenzie, & Mullen, 2009), 그로 인해 참가자들이 모든 문항에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참가자들에게 15분이라는 짧은 간격을 두고 똑같은 질문지를 통해 증상 점수를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참가자들에게 두 번의 증상을 보고하도록 한 시간 간격이 매우 짧아 모든 변인이 거의 동시에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외상을 경험한 직후에 PTSD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외상경험 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본 연구 결과가 현실에서 외상 이후의 반응을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미래 연구에서는 변인을 측정할 때 자기보고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를 보다 긴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염순교, & 이종화 (2014). 고등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 *대한보건연구*, 40(1), 89-98.
- 전경구, &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65-76.
- 전경구, 최상진, &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 6(1), 59-76.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 (KSRI).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5(1), 82-92.
- 한덕웅, 이장호, & 전경구 (1996). Spielberger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1-14.
- 한덕웅, 이창호, & 탁진국 (1993). Spielberger 상태-특성 불안 검사의 표준화. 성균관대: 학생지도연구, 10, 214-222.
- 한인영, & 홍선희 (2011). 여성의 성역할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여성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4), 477-498.
- Allison, P. D. (2002). Missing data: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55(1), 193-196.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TR*.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Basow, S. A. (1995). Student evaluations of college professors: When gender matt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7(4), 656.
- Bem, D. J., & Allen, A. (1974). On predicting some of the people some of the time: The search for cross-situational consistencies in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81(6), 506.
- Benda, B. B., & House, H. A. (2003). Does PTSD differ according to gender among military veterans?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7(1), 15-34.
- Bernat, J. A., Ronfeldt, H. M., Calhoun, K. S., & Arias, I. (1998). Prevalence of traumatic events and peritraumatic predictors of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a nonclinical sampl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1(4), 645-664.
- Block, J. H. (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1335-1354.
- Brodsky, S. F., & Mason, J. L. (1991). Internal consistency of the Brief Symptom Inventory for counseling-center clients. *Psychological Reports*, 68(1), 94-94.
- Bryant, R. A., & Harvey, A. G. (1995). Avoidant coping style and post-traumatic stress following motor vehicle accid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6), 631-635.
- Bryant, R. A., & Harvey, A. G. (2003).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ute stress disorder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ollowing motor vehicle accident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7(2), 226-229.
- Cohen, S., Kamarck, T., & Mermelstein, R. (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85-396.
- Cole Jr, T., & Sapp, G. L. (1988). Stress, locus of control, and achievement of high school seniors. *Psychological Reports*, 63(2), 355-359.
- Davenport, D. S., & Yurich, J. M. (1991). Multicultural gender issu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0(1), 64-71.
- Derogatis, L. R., & Melisaratos, N. (1983). The brief symptom inventory: an introductory report. *Psychological medicine*, 13(03), 595-605.
- Foster, J. D., Kuperminc, G. P., & Price, A. W. (2004). Gender differences in posttraumatic stress and related symptoms among inner-city

- minority youth exposed to community viol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1), 59-69.
- Green, B. L., Kramer, T. L., Grace, M. C., Gleser, G. C., Leonard, A. C., Vary, M. G., & Lindy, J. D. (1997). Traumatic events over the life span: Survivors of the buffalo creek disaster.
- Grieger, T. A., Fullerton, C. S., & Ursano, R. J. (2003).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lcohol use, and perceived safety after the terrorist attack on the pentagon. *Psychiatric Services*, 54(10), 1380-1382.
- Husellid, R. F., & Cooper, M. L. (1994). Gender Roles as Mediators of Sex Differences in Expressions of 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4), 595-603.
- Jakupcak, M., & Tull, M. T. (2005). Effects of trauma exposure on anger, aggression, and violence in a nonclinical sample of men. *Violence and Victims*, 20(5), 589-598.
- Kessler, R. C., Chiu, W. T., Demler, O., & Walters, E. E. (2005). Prevalence, severity, and comorbidity of 12-month DSM-IV disorde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6), 617-627.
- Kinney, T. A., Smith, B. A., & Donzella, B. (2001). The influence of sex, gender, self-discrepancies, and self-awareness on anger and verbal aggressiveness among US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1(2), 245-275.
- Kurpius, S. E. R., & Lucart, A. L. (2000). Military and civilian undergraduates: Attitudes toward women, masculinity, and authoritarianism. *Sex Roles*, 43(3-4), 255-265.
- Leadbeater, B. J., Blatt, S. J., & Quinlan, D. M. (1995). Gender-linked vulnerabilities to depressive symptoms, stress, and problem behaviors in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5(1), 1-29.
- Lengua, L. J., & Stormshak, E. A. (2000). Gender, gender roles, and personality: Gender differences in the prediction of coping and psychological symptoms. *Sex Roles*, 43(11-12), 787-820.
- Lepore, S. J., Ragan, J. D., & Jones, S. (2000). Talking facilitates cognitive - emotional processes of adaptation to an acute stress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3), 499.
- Lilly, M. M., Pole, N., Best, S. R., Metzler, T., & Marmar, C. R. (2009). Gender and PTSD: What can we learn from female police officer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3(6), 767-774.
- Mak, A. S., Blewitt, K., & Heaven, P. C. (2004). Gender and personality influences in adolescent threat and challenge appraisals and depressive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6), 1483-1496.
- McEwan, T. E., Davis, M. R., MacKenzie, R., & Mullen, P. E. (2009). The effects of social desirability response bias on STAXI-2 profiles in a clinical forensic sampl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8(4), 431-436.
- McLean, C. P., & Anderson, E. R. (2009). Brave men and timid women? A review of the gender differences in fear and anxiety. *Clinical*

- Psychology Review*, 29(6), 496-505.
- McLean, C. P., & Hope, D. A. (2010). Subjective anxiety and behavioral avoidance: Gender, gender role, and perceived confirmability of self-report.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4(5), 494-502.
- Mendelsohn, M., & Sewell, K. W. (2004). Social attitudes toward traumatized men and women: A vignette stud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2), 103-111.
- Metcalfé, B., & Dick, G. (2002). Is the force still with her? gender and commitment in the police. *Women in Management Review*, 17(8), 392-403.
- Miller, M. W., Greif, J. L., & Smith, A. A. (2003). Mult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profiles of veterans with traumatic combat exposure: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subtypes. *Psychological Assessment*, 15(2), 205.
- Nolen-Hoeksema, S. (1994). An interactive model for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4), 519-534.
- Norris, F. H. (1992). Epidemiology of trauma: Frequency and impact of different potentially traumatic events on different demographic group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3), 409.
- Norris, F. H., Perilla, J. L., Ibanez, G. E., & Murphy, A. D. (2001). Sex differences in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oes culture play a rol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4(1), 7-28.
- Palapattu, A. G., Kingery, J. N., & Ginsburg, G. S. (2006). Gender role orientation and anxiety symptoms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3), 423-431.
- Pole, N., Best, S. R., Weiss, D. S., Metzler, T., Liberman, A. M., Fagan, J., & Marmar, C. R. (2001). Effects of gender and ethnicity on duty-relate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mong urban police officer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9(7), 442-448.
- Pratchett, L. C., Pelcovitz, M. R., & Yehuda, R. (2010). Trauma and violence: Are women the weaker sex?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33(2), 465-474.
- Pracek, J. T., Smith, R. E., & Zanas, J. (1992). Gender, appraisal, and coping: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60(4), 747-770.
- Pracek, J. T., Smith, R. E., & Dodge, K. L. (1994). Gender differences in coping with stress: When stressor and appraisals do not diff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4), 421-430.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eid, C. E. (1985). The effect of residential location on the wages of black women and white women. *Journal of Urban Economics*, 18(3), 350-363.
- Reidy, D. E., Sloan, C. A., & Zeichner, A. (2009). Gender role conformity and aggression: Influence of perpetrator and victim conformity on direct physical aggression in wom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2),

- 231-235.
- Resnick, H. S., Kilpatrick, D. G., Dansky, B. S., Saunders, B. E., & Best, C. L. (1993). Prevalence of civilian trauma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 representative national sample of wo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6), 984.
- Rothbaum, B. O., Foa, E. B., Riggs, D. S., Murdock, T., & Walsh, W. (1992). A prospective examination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rape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3), 455-475.
- Sasson Levy, O. (2003). Feminism and military gender practices: Israeli women soldiers in "masculine" roles. *Sociological Inquiry, 73*(3), 440-465.
- Schmaus, B. J., Laubmeier, K. K., Boquiren, V. M., Herzer, M., & Zakowski, S. G. (2008). Gender and stress: Differential psychophysiological reactivity to stress reexposure in the labora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physiology, 69*(2), 101-106.
- Sells, D. J., & Martin, R. B. (2001). Gender and modality differences in experiencing and emotional expression. *Canadian Journal of Counselling, 35*(2), 176-188.
- Spielberger, C. D., Gorsuch, R., & Lushene, R. (1970).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l.: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pielberger, C. D. (1988).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Odessa, FL.*
- Spielberger, C. D. (1983).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m Y) ("Self-Evaluation Questionnaire").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toppard, J. M., & Paisley, K. J. (1987). Masculinity, femininity, life stress, and depression. *Sex Roles, 16*(9-10), 489-496.
- Sutker, P. B., Davis, J. M., Uddo, M., & Ditta, S. R. (1995). War zone stress, personal resources, and PTSD in persian gulf war returne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3), 444.
- Tolin, D. F., & Foa, E. B. (2006). Sex differences in trauma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quantitative review of 25 years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32*(6), 959.
- Zlotnick, C., Zimmerman, M., Wolfsdorf, B. A., & Mattia, J. I. (2001). Gender differences in patient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 general psychiatric practic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11), 1923-1925.

1차원고접수 : 2015. 04. 24.

심사통과접수 : 2015. 06. 12.

최종원고접수 : 2015. 06. 20.

##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and Responses to Trauma in College Students: Biological Sex as a Moderator**

**Hae-yeon Park**

**Hyein Chang**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gender role and responses to trauma with biological sex as a moderator within a sample of 158 undergraduate students. An experience of trauma was experimentally-induced using a video clip that contained material related to a real-life, violent crime. Individuals' depression, anxiety, anger and hostility were assessed before and after watching the traumatic video. In addition, trauma history was included in the analysis as a covariate. Results from regression models revealed that there was no main effect of gender role on responses to trauma, whereas interactive effects of gender role and sex were significant. Specifically, higher femininity predicted higher levels of post-trauma depression in females, and higher femininity and higher masculinity predicted lower levels of post-trauma hostility in females. Theoretical and clin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Responses to trauma, Gender role, Sex, Undergraduate students